

전대 후보자 27~28일 등록...내달 6일 컷오프

새정치전당대회 일정 확정...당권 레이스 본격화

새정치연합이 10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는 27~28일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내년 2월8일 전국 대의원대회를 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당대회 종합 일정을 최종 확정,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또 전체 후보자들을 1차로 걸러내는 예비경선(컷오프)은 내년 1월6일 열기로 했다. 다만, 컷오프를 통해 후보자를 몇 명 걸러낼지는 당 전대준비위에서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다.

당무위는 또 각 지역위원회의 선출직 대의원 중 여성 비율을 현행 당헌과 같이 '50% 이상'으로 확정했다.

전국대의원대회에 앞서 열리는 시도당 대의원 대회는 내년 1월1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월1일(경기도 대의원대회)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당 대의원대회는 내년 1월18일, 광주시당 대의원대회는 1월 29일 각각 갖기로 했다.

또 지역위원회 개편대회는 오는 10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광주·전남의 지역위원회 개편대회는 ▲13일 광주북부 ▲17일 광주 남부 ▲19일 광주서부, 서울, 해남·완도·진도, 담양·함평·영광·장성 ▲20일 광주 동부, 광산갑, 여수,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 목포, 광양·구례 ▲21일 광주 광산을, 북갑, 나주·화순, 여수갑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대준비위 당헌당규분과는 이날 당 정치혁신실천위와 공동회의를 열어 전대 후보자와 대리인 등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대면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처럼 전당대회 종합 일정이 최종 확정되고 경선물도 차근차근 확정돼 가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의원 여성 비율 50% 이상

전남 내달 18일 광주 29일 2월8일 전국 대의원 대회

비주류 본격 세걸집 나서

특히 친노(친노무현)계에 맞서 비주류 측이 세 걸집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도·온건 성향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오는 12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이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열어 당의 노선과 전대 룰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민집모는 지난 2일 선거구 재획정을 주제로 한 집담회에 이어 열을 만에 두 번째 집담회를 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집담회에서는 후보단일화 원칙에 합의한 김영환·김동철·박주선 의

원인 빅3 중심의 경선구도와 룰 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김부겸 전 의원과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한국정치리더십센터와 뉴딜정치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정치혁신, 누가 주도할 것인가'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오랜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원내대표 중도퇴진 후 잠해에는 박영선의 원도 지난 8일 오픈프라이머리에 관한 토론회를 주최한 데 이어 12일에는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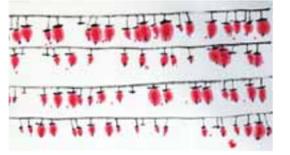
이런 가운데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전남 중도 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공나물모임'에 오랜만에 참석하고, 이날 중·하순 국회연구단체인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모임' 대표로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해 전대를 앞두고 정치행보를 재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꽃처럼... 등불처럼... 환하게 핀 꽃감



(95) 붉은 감



박태후 작 '자연 속으로'

“환합니다/감나무에 감이/바알간 불꽃이/수도 없이 불을 켜/천지가 환합니다/이 햇빛 저 햇빛/다 합해도/저렇게 환하겠습니까/서리가 내리고 겨울이 와도/따지 않고 놔둡니다/내 마음도 저기/감나무로 달려가/환하게 환하게 열립니다” <정현종 작 '환합니다' 중에서>

알마 전 오악산 금산사엘 다녀왔다. 광주와도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이른 시절이었음에도 그동안 인연이 없었는데 심란한 마음을 그곳에서 다잡곤 했다는 친구의 말이 꼭 가보고 싶게 했다.

그 친구는 어디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았을까, 모든 이파리를 훑을 털어버린 보리수나무 밑 돌무더기에 내 마음이 오래 머문다.

금산사에서, 후백제의 왕 견훤이 아들 신검의 반란으로 구금되었다가 탈출하여 왕건에게 투항했다는 사연도 다시 꺼내어본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권력일랑 아들에게 쥐버리고 이곳에서 평생 폐되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아름다운 산사이다. 미륵전 앞 불

은 감이 풍성하게 매달려 있는 감나무도 인상적이다. 부리 자국이 찍혀 있는 감 두어 개는 까막까치의 발이 있었리라.

문인화가 시인 박태후(1955~)는 서리가 내리고 겨울이 오고 몇 번이고 눈 내린 후에도 꽃처럼 매달려 있는 이즈음의 붉은 감을 잘 그린다. 꽃감이 되어 가는 감을 그린 작품 '자연 속으로'는 구도나 소재 면에서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해 평상시 우리가 보던 문인화의 개념과 크게 달라 보인다. 양지쪽에 걸어놓은 수많은 감들이 꽃처럼 등불처럼 화면을 환하게 채우고 있다.

20년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늦깎이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작가는 원예고를 다니던 시절부터 나무를 심고 길러왔다. 현재 대지 1만3000㎡에 150종의 나무를 건사하고 있는 작가의 호는 아예 '감나무 밭(柿園)'이다. 작가의 그림이 특별한 감동을 전하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스며들어 있어 실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비선 실세'로 거론되고 있는 정윤희씨가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1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문건 수사 '비밀회동 없었다' 가닥

비선실세 핵심 의혹 정윤희씨 검찰 출두 박관천씨와 대질...문건유출 경로 캐기

'비선실세' 의혹에 휩싸인 정윤희(59)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정씨는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불장난에 참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권 출범 후 여러 구설에 휘말렸던 정씨가 공식적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을 근거로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인 신분이며,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과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을 불러 조사하고 회동 장소로 알려진 식당 등을 압수수색해 '비밀회동'은 없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정씨에 대한 조사는 고소인에게 사

실 관계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에 무계를 두고 있어 검찰의 사건 수사는 사실상 문건 유출과 피고소인인 세계일보 조사만 남게 됐다. 검찰은 정씨의 통화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 물증을 진술과 맞춰보면서 문건에 있는 내용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핵심인물인 정씨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질조사에서 정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경정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부분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 경정과 통화한 사실을 거론한 뒤 "박 경정이 '위에서 지시한 대로 타이핑만 했다'고 하더라"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경정이 조웅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허위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한편 다음주에는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3인 중 일부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윤희 문건 김기춘 실장에 대면보고”

청와대 당초 입장 바꿔 인정...행정관 1명 사직서 제출

청와대는 10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조웅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6월 김기춘 비서실장에 게 이른바 '정윤희 국정개입 의혹 통향 문건'을 들고 대면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윤희씨 국정개입 통향보고” 문건은 애초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최초 작성된 뒤 김 실장에게 문서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한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민 대변인은 “조 전 비서관이 해당문건을 김 실장에게 가져가 대면보고를 하면서 구두보고를 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보고서가 컴퓨터를 통해 올라간 것은 아니고, (보고서를 들고가)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는 내용을 구두보고 했

고, 뭔가 보고서에 읽을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의 이러한 설명은 조 전 비서관이 해당 문건을 직접 들고 김 실장에게 구두설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등 결재라인 형태의 보고는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민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정윤희 문건이 세계일보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자 "(비서관이나 수석은 실장에게) 수시로 구두 보고를 한다"며 "(문건에 나온 내용이) 풍문으로 돈다는 것을 구두를 통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윤희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오도 행정관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사직서 제출은 맞고,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연하고 나선 뒤로 종주국으로 개와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로 의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됐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가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얘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